

엄중한 말씀

2010년 10월 27일

본문 말씀: 예레미야 23:33-34

(렘 23:33, 개역)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렘 23:34, 개역)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회한한 일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응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 대응할 말씀까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 선에서 복음전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 속으로 그냥 투입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성해주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나 주님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로 처리해버립니다.

그저 인간들 끼리 담합하면 매사가 그 힘으로 진척된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말에 빙정대면서 대처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그 결정적인 말씀을 또 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던가?”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짐스러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끼어주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단체로 이끌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임에 있어 너무 거북하고 너무 엄중하고 너무 정확한 인물이 끼어들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속셈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필히 망한다’고 선언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들만으로 버티려는 심보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기에 귀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 편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면서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것마저 버리면 저는 못삽니다”고 버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정작 인간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갖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혼자 맡겨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동석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서면서 주님의 사자가 함께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는 군대장군이 함께 나갔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계셔서 일하셨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파에게 배불리 먹이시던 일도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해내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축사하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즉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계신)라는 형용사구를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의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도시락을 선뜻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양보심과 그 도시락을 채택한 12제자들의 탁월한 민주적 협의체의 결정에 후레쉬를 터뜨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요건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애씀으로 밀어붙일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없음에 두 불구하고 그 눈에 안보이는 자리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자리로 채우려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귀하다고 여긴 것들을 무시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7:28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인간을 ‘약점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약점이 없어서 귀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점이 있기에 그들에게 율법적인 기능을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서서히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행함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배제시켜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약점을 안 틀리려는 심보로서 버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21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로 군림해야 영발과 권위발이 서서 그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구실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함이 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점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감출 생각을 말고 끊임없이 남들을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인간의 약점을 더 노골화시키기 위해서 개입된 것입니다.

시편 40:6-7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리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의 율법 완수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온전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보다 완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지만 하나님쪽에서 그런 방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약점은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로 표출됩니다. 속죄제나 번제에 동원되는 희생제물을 참기름 짜듯이 짜내면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이 동물제물의 피는 그것 자체로서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왔나이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제사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렸던 자들을 이끄셔서 그 자리에 누가 우뚝 함께 서 계신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곧 제물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이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점있는 자로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3강-렘23장33-34엄중한말씀-jer101027.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3강-렘23장33-34엄중한말씀-jer101027.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3강-렘23장33-34엄중한말씀-jer101027.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3강-렘23장33-34엄중한말씀-jer101027.pdf>

083장-렘 23장33-36(엄중한 말씀)-jer101027-(이근호목사)

2010-10-30 11:02:41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33-36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 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꾸하는지도 이미 익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는 짐작 정도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리라 하는 것은 감히 예상치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때에 내 형편만 고려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될 상대방의 여건과 사고방식과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모르실걸, 하나님도 대책 없을 걸,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했던 이 신기한 이야기가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마 18:20)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누구와 만났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나오고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애썼더니 이만큼 모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가 애써서 이만큼 모였다, 그게 되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돌릴 마음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보험회사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여러분, 이 보험 상품 가지고 대명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만 생

각하느냐, 대명시장에 가서 보험 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저 자기 열심가지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건수를 못 올리면 짜증내고 불평을 하면서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험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같은 사장이 되놓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명 시장에 내가 당신을 보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안들을 것임을 미리 알기에 당신을 시장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명시장에 가서 보험 이야기하면서 겁부터 집어 먹고 걱정부터 늘어놓으니 회사 있을 때만 사장님이 함께 있고 대명시장에 가서는 우리 사장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믿어질 사항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다 맡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나온다.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아는가, 주님이 너와 함께 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장기 두는 사람이 있을 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뭐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면서 우리 발걸음 앞에 돌맹이 하나가 어떻게 놓여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아실정도로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만 교회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고 교회 나가면 대변에 또 혼자가 되고 말아요. 혼자가 되니까 거기서 주의 말씀은 쑥 들어가 버리고 벌벌 떨면서 옛날 혼자 살던 행색 그대로 나오는 식으로 살다가 그들에게 깨지고 또 울면서 교회 와서 ‘주여, 또 깨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전 혼자라면 안갈 겁니다.’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함께 가주마.’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한 게 없습니다. 군대장관이 함께 나갔어요.

콜리앗하고 다윗하고 붙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키 작은 소년 다윗만 봤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다윗은 자기가 나선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자기 앞서 나가서 콜리앗을 친 거예요. 돌팔매질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궤적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흔들고 이렇게 돌이 날아가서 저 이마에 맞추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팔매가 증거입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겼다고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하는데 너희는 뭐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또 있어요. 오병이어기적이 있지요. 어린이 도시락을 내놓았더니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애한테

초점이 있어요. 사진 찍고 방송 나가고 인터뷰하면서 ‘그 도시락이 어디서 나왔는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했다는 그 말을 앞에다 붙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 도시락에 축사하시고’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왜 붙이느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어린이 도시락을 축사했다고 보이지 않는 말을 거기에 붙여 봅시다. 붙여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보이는 주님이 축사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축사했어도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혼자 가면 안 되지요. 벌벌 떨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는 그 사람들 쫓아내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게 나와요.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에서 엄중하다는 그 뉘앙스가, 이미 확고한 말씀, 이미 확정된 말씀 그렇게 들리지만 그 뉘앙스는 ‘예레미야야, 네가 그따위 식으로 말씀을 전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또 이야기해봐라.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또 있거든 말해봐라. 하나님 이 뭐라고 하더냐? 무슨 계시 받았는데? 우리에게 짐만 되는 그 계시보따리 풀어봐 보란 말이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기에 너희들이 멸망 하리라, 라고 뒤에 부록처럼 붙여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건지라고,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만 해버리면 우리 자신의 위신과 명예가 거기 동원됩니다. 소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자기위신과 명예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전할 때 항상 자기에게 박수쳐주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요. 어떤 분의 소망처럼 복음만 전하면 얻어지고 자빠지고 현금 팍팍 쏟아내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목회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사람만 모아줘요. 그 분의 바람은 이해는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고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스테반 집사는 그렇지 않고 빌립집사는 그렇지 않았고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명절에 십자가복음 입에서 풀어내면 사람들이 펑펑 넘어가서 ‘어느 교회인데? 내가 교회 당장 옮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하나의 시나리오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그랬고 이사야는 안 그랬다 그 말이지요.

안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 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실수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저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어차피 망할 백성들, 어차피 작살날 사람들 ‘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핑계치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그 농부들 개과천선 시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차피 그 작살날 농부들 ‘이 땅에서 네가 이런 짓 했잖아.’라고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취지가 뭐냐, 이것이 어려우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도 우리 선입견을 뒤집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교회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창문열고 마이크도 버리고 에어컨도 버리고 피아노도 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아끼는 겁니다.’라는 것들, 난로고 카메라고 다 버려버리지요.

주님께서 나타나면 우리의 선입견을 항상 뒤엎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이것 없으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날아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귀하디귀한 것을 없애면서 저벅저벅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는 알았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항상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익히 아시고 군홧발로 짓밟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의 피만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귀한 것들이 주의 피의 귀함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것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내 것이 더 커지고 많아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 먹살 잡고 흔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우디에 돈벌러간 남편이 수년 동안 돈 벌어 몽땅 아내에게 착착 보내다가 기한이 되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먹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예상 밖이죠. ‘당신 참 고생 너무 많았지. 당신 덕분에 우리 식구들 다 살고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먹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외로운 것은 처음이다.’ 외로웠다고 먹살 잡고 흔들었어요. 우리의 예상에 어긋나지요. 사우디에 가서 열병 걸려가면서 고생했는데 아내는 누구만 생각했나,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각자 자기 생각해서는 만남이 안돼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어렵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제사장 본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 약점 가졌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 약점을 가진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선지자들은 절대로 백성들 앞에 ‘제가 선지자

인데요, 약점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영발, 권위발이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수하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 직분과 자신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행세를 해요. 심지어 ‘부족합니다.’라는 이 말도 완벽한 겸손으로 나와요. 정말 부족함을 아는 목사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저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림에 도 시락을 축사하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증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특히 직분 받은 목사, 선지자, 제사장한테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경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서로 자기가 하자가 없다고 대듭니다. 문장이나 말 자체를 분석해서 잘잘못을 찾아내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든 그 미움과 사랑, 사랑과 미움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 어차피 우리 인간자체는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너무 완벽하니 좀 나가주시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기가 꺾 죽으니까 좀 나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보내놓고 그 나머지 우리끼리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것조차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이 약점인줄 모르기에 율법을 줘서 어떤 인간도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서로 서로가 율법 아래서 다 같이 고개를 푹 숙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어찌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친다고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마음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기를 숨기지요. 저도 선생님 해 봐서 압니다만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절대권위가 없으면 애들 질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학급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가고 정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완벽한 신처럼 굴어야 됩니다. 군사부일체? 선생님은 하늘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버릇,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세워주게 되면 그 건방짐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시편 40편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왔나이다.” 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달리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물론 남을 가르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자기 자신의 완벽을 주장하지는 않게 된다 그 말이지요.

자기약점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 볼게요. 사람에게서 죄가 나오잖아요.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1번, 죄가 의가 된다. 2번, 죄가 사라진다. 3번, 죄가 징벌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4번, 죄가 갈수록 더 쌓인다. 1번에, 죄가 의로 바뀔니까? 안 바뀌지요. 죄가 사라진다? 죄는 안 사라져요.

죄의 도말이라는 것은 죄가 있고 그 위에 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고 그 죄가 안 나오도록 덮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이 벌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되돌아오는 경우는 한 경우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지옥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쌓인다? 죄는 죄에 더 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양이 아니고 질이기 때문에 죄가 폭설 쌓이듯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쌓여서 박스 채우고 다른 박스에 더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뭐냐, 그것은 아직 말씀 안 드렸지요. 죄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나왔던 모든 것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인간에게, 약점이 있는 인간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우리 목을 끌고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시편 40편, 번제와 속제죄를 드리라고 해놓고 막상 드리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러지요. ‘그러면 잘 되었다. 안 드리지.’ 도로 우리 쪽으로 와버려요. 십자가 마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 고 하니까 좋다!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게 아니고 뭐든지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뭘 하셨나,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는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질 끌려서 약점이 있는

대로 다 노출되어서 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속죄 제물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그 제물을 찢기름 짜내듯이 짜내면 거기서 피가 나와요. 모든 제물의 특징은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찢을 때 피가 나온다는 의미 때문에 동물성제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식물성 제물을 가루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죽 나옵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옛날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피가 소용없어요. “언약의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의고 모든 정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짜내서 피를 내보야 소용없고 예수님이 죽어서 흘린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점이 있는 우리들을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워서 이 땅에 전하는 겁니다.

애들 도시락 축사해서 어른들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양고기 소고기 바쳐서 그것 가지고 제사장 배불리 먹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동물제사 이만큼,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한 분, 양쪽을 짜내는 거예요. 짜니까 피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니까 피 생깁니다.

약점이 있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생산된 것은 동물의 피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약점을 가진 제사장도 주님 보시기에 약점 있는 제사장 직임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잘 전해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단 한명도 구원 못 받아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약점을 가졌기에 우리의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전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궤적, 흔적,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다윗의 들고 있는 돌팔매질과 같은 겁니다. 돌팔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가다가 돌맹이가 날아가다 가만 생각해보니 딱 부딪히면 자기가 아프겠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난 안하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하지요. 돌팔매는 던지면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이, 돌아! 넌 달아가 다오.’ ‘날아갔는데 골리앗이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골리앗과 함께 있어. 날아가면 그냥 저쪽 이마에 딱 마주치게 되어 있다.’ ‘마주쳐도 그걸로 저 거인이 죽겠습니까?’ ‘내가 계획다 잡아놨어. 마주치면 죽도록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다니까. 너는 그냥 푹, 하고 날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약점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워낙 약점이 많기 때

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세상만사가 주님의 피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귀한 것들을 장치로 해놓고 그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 알고 ‘주여, 이것 키워 달라, 저것 키워 달라. 이것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귀하디귀한 예수님의 피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몸이라도, 약점 많고, 아니 약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약점 있는 우리를 약점 있는 줄로 익히 하시고, 약점 많은 우리가 버벅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돌팔매의 그 돌맹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죽고 사는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천하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쓸모없는 사도바울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이여, 저희들도 주께서 쓰셔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 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